구원 받을까봐 너무 무섭다(?)

(에스겔 25:1~17)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3.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5.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 받을까봐 너무 무섭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 받을까봐 너무 무섭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순간적이며 까마득한 과거의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의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자각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무서움의 단계를 넘어설 때에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감격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의 무서움을 전혀 느껴본 적 없이 맹목적으로 구원을 노래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 받을까봐 너무 무섭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말이 서로 방향성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월남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수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월

남국수를 계속 먹다보니 어느덧 고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고수 맛을 느끼는 재미로 먹게 되었습니다. 고수가 싫을 때와 고수가 없으면 안 될 때의 차이가 구원과 닮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 수 있고 감격과 기쁨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장이나 확신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해 왔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핸드폰을 쓰다보면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이 있고 잡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렇게 전파가 안 잡히는 핸드폰과 같은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공간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가서 이 공간에 머무는 상태가 될 때에만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자녀나 건강이나 사업에 가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업에 가있으면 사업의 성공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있으면 자녀를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천만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어느덧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하늘에 올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까지 몸에 요구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내면 육체로 사는 세상에 대해 지불할 마음은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아내에게 마음이 가있나 찾아봐도 없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있나 찾아봐도 없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혹시 승진에 가있나 살펴보아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직장 동료들은 승진에 마음에 가있어도 내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태이기에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타락의

핵심 속성은 기쁨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 기쁨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쁨거리를 육체로 만나는 세상 것들을 통해 찾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땅에는 기쁨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인류에게는 마음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은 선민과 이방인에게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민은 구원을 위조하고 이방인은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외면하고 차단합니다. 구약의 선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허락하신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미신적으로 숭배함을 통해 구원의 내용을 위조했습니다. 성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조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을 얼마든지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돈 버는 일에, 자녀의 형통에, 건강과 장수에, 취미생활에 마음을 두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조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조하게 된 이유는 구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은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갖은 교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동원해가며 교인들의 마음을 땅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시며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대상에 대해 정의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기뻐해서는 안 된다면,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기뻐해서도 안 될 것이고, 교인이 숫자적으로 부흥해도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흥이나 성수주일과 같은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 땅에 묶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되고 위조된 구원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동안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동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방의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의 네 나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선민의 나라와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선민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해석만으로 보면 선민 나라의 멸망을 바란 자들에 대한 보복성 심판이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이 조국과 민족을 향해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취한 이방나라들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분풀이를 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괘씸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주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본문은 바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이방인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은 구원을 두려워하여 구원의 내용을 위조했습니다. 땅에서 마음이 완전히 철수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회수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내드리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구원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게 원천봉쇄하고 오히려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나라들에 대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선민의 심판과 회복이 예언될 때에 반드시 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선민에게 부여된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선민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민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표면 위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로써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에 연결되기 위한 유일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이름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과정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성소와 같은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을 하늘로 보낸 선민

들은 하늘기운이 터져 나오는 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들의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하늘기운이 넘쳐 들어가고 이것이 하늘나라 확장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늘기운을 퍼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의 나라가 거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늘기운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기는커녕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세상 기운이 넘쳐 들어와 선민들을 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의 나라에 세상 기운을 전파한 주변 나라들의 마음에는 바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마귀의 전략이 유효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는 선민의 나라로부터 하늘기운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세상 기운을 강화시켜서 경멸하고 적대하도록 주변나라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진짜 생명줄은 유다 나라였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목줄인 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라도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선민들에게는 교묘하게 작용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용하면서 구원을 위조하도록 유혹하였고,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경멸하고 조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하하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은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특별히 조롱하고 경멸하게 된 것에는 그 마음에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출애굽 후에 왜 가나안 칠족을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윗도 전성기 때에 이방 주변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기운이 넘쳐날 정도로 차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기운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쇄도해서 선민들을 삼켜버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멸망이 예언되는 것처럼 이방나라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칠족을 멸해서 그들의 우상숭배나 문화나 가치체계가 선민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나중에라도 남은 생존자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처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골방에라도 들어가서 문제가 들어온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일단 하늘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것

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여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라이브로 연결이 이루어진 뒤에 하늘기운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된 사실로 평생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이루어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몇 시간씩 드려지는 제사는 사실상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번제 어린양과 함께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면 삶의 현장에 하늘기운이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은 마음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야 한다는 점에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생겨나는 좋은 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원하지 않을 정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생애가 나에게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붙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추구해오던 대상들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속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민들은 구원의 내용을 위조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욱 땅에서의 안정과 부흥을 추구하게 되었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보장된 곳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었기에 부수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기준을 놓쳤기에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땅과 하늘을 일직선으로 잇는 동선을 만드셨다는 것이 말씀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담론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선민의 나라를 적대시한 것의 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민의 나라를 적대시하고 조롱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선민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자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민들 또한 구원을 두렵게 여겨서 구원의 내용을 위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고수의 맛을 알기 전에는 월남국수에서 고수를 뺐습니다. 그 냄새가 섞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의 맛을 알게 되자 고수 없이는 월남국수를 싱거워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시며 기도하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저주의 상태를 아주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진짜 두려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한 것이 마귀의 교활함입니다. 이 두려움이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두려워하여 위조하고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의 과녁을 삼고 치닫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땅을 떠나야 하는 구원이야 말로 가장 무서운 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그 구원이야 말로 감당하지 못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위해 타락한 상태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마음을 보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라이브 연결을 유지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귀의 궤계를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반복함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